

코로나 추경 소상공인 지원

정현을 익산시장, 간부회의 갖고 "신속 추진" 강조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노인일자리 선지급 검토 주문

익산시가 이번 코로나19추경에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23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내일 예정된 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번 코로나 추경에 담긴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특히, 이번 추경은 정부대책이 나오기 전 응급조치의 개념으로 보고, 우선 급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회 간담회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약계층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가 전면 중단되어 소득감소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히 노동의 대가라기보다는 복지 및 생계수당의 성격도 더해진 만큼 국비분담 부분에서의 협의만 이뤄진다면 선지급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정 시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익산시민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 시장은 "지금까지 개학이 3번이나 연기된 상황에서 정부가 더 이상은

미뤄질 수 없다고 판단해 개학 전까지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을 권고했으며, 익산시는 종교시설 770여곳을 포함해 노래방, PC방, 학원 등 총 2,396개소가 운영중단 대상시설에 포함된다"고 설명하며, "앞으로 이행여부 현장 점검 및 위반 시 행정명령, 벌칙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혹자는 익산에는 확진자도 없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하는데 이는 전혀 잘못된 생각이며, 지역사회의 집단감염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 누가 여덟 다녀왔는지 모르는 데 자칫 느슨한 대처로 그 간 지켜온 청정지역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한창범 총동맹회장과 군경총 회원들은 군산의료원을 방문하여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물품을 전달했다.

군경총 '코로나 극복' 나눔실천 귀감

군산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맹회(회장 한창범)가 호흡기 바이러스성 질환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귀감이 되고 있다.

최근 한창범 회장과 군경총 회원들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치료의 최일선 과정에서 노력하고 있는 군산의료원을 방문하여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물품을 전달했다. 또 대구 경북지역에서

치료를 다할 수 없어 지역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도 물품을 지원해 그 의미를 더했다.

한창범 회장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군산시와 군산의료원 의료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다"며 "위기 상황일수록 더욱더 힘과 지혜를 모아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자"고 말했다.

익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력 추진

다중이용시설 운영중단 권고 미이행 업체에 행정명령 발동

익산시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시설과 유습시설, 학원 등 각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 추진한다.

특히 시는 집단감염 위험시설의 운영 중단 권고를 무시하는 업체에 대해선 준수사항 이행 위반 시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23일 익산시에 따르면 오는 4월 5일까지 15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으로 지역의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해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종교, 생활체육시설, 유습시설, 학원 등 모두 2,396곳으로 익산시는 해당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자율휴업 이행을 권고하거나 예방수칙을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770여곳의 종교 시설에는 집회와 행사를 자제하고 온라인예배로 대체할 것을, 생활체육시설은 전면 휴관하거나 민간시설의 경우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노래방과 PC방, 유습주점 약

460여곳에 대해서는 자발적 휴업을 요구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지켜야 할 방역지침을 행정명령으로 전달했다.

방역지침은 방역당국이 제시한 준수사항으로 유증상자 출입 금지, 출입자 1~2m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손소독제 비치 등이다.

익산시는 이를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회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이마저도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칙을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이를 홍보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에 285개의 현수막 게시, 포스터 4천여장을 배부했으며 전광판과 140곳 마을 방송을 통해 15일 간 외출·모임 자제와 예방 수칙 적극 참여 등의 내용이 담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밖에도 종교시설과 다중이용업소에 소독약품을 지속적으로 배부했으며 방역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왔다.

이번 지침은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실시해온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어느 정도 강제성을 부여한 것으로 지역사회 확산 위험과 장기간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익산=장양원 기자

'배달의 명수', 군산만의 주문어플로 자리매김

출시 1주일, 1만5000여명 가입 주문건 수 총 2200여건 '호응'

군산시가 추진한 음식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소상공인과 소비자인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자리매김하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출시된 '배달의 명수'는 출시 1주일 만에 가입자가 1만5천여명을 돌파 하루 평균 2,000여명씩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주문건수는 2,200여건으로 군산만의 주문어플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주문금액은 약 5천5백여만원으로 이중 모바일군산사랑상품권의 결제비율이 6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기존 민간어플의 주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점을 감안하면, 모바일상품권과 연계한 '배달의 명수'가 소비자들에게 크게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군산시가 추진한 음식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소상공인과 소비자인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들에게는 가입비와 광고료가 없어 '배달의 명수' 앱을 희망하는 업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신청업체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배달의 명수'에 입점시켜 소비자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배달의 명수'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익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코로나 끊어내기' 행정력 집중

군산시가 호흡기 바이러스성 질환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이와 관련 23일 강임준 군산시장은 정부가 지난 21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발표함에 따라 시는 아이들의 안전한 개학 시기까지를 '고

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으로 정하고 코로나 19를 끊어내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며 시민들에게 참여를 당부했다.

강 시장은 "최근 종교시설이나 콜센터 등을 중심으로 집단발병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

"이라며 "직원과 시민 간 교차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업무는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경로당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은 폐쇄, 모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휴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종교 및 유습시설, PC방, 노래연습장 등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은 가급적 운영을 중단해 주고 부득이한 경우 엄중별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익산=김정훈 기자

지역 소식통

짬뽕특화거리 조성 본격

군산시가 골목상권 활성화 및 먹거리 관광을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짬뽕 특화거리 조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8년 하반기 국비 7억5천만원과 시비 7억5천만원으로 확보 총 사업비 15억원으로 '군산짬뽕'과 '짬뽕시대' 브랜드명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짬뽕 특화거리 내 입점자에 대한 경사 지원과 짬뽕을 향상화한 보도조형물 설치, 완료했으며 환경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 2월 군산짬뽕과 군산박대, 짬뽕특화거리 등 먹거리와 볼거리가 풍성한 군산을 가득 담아 촬영한 먹방의 대표주자인 코미디-TV '맛있는 녀석들'이 드디어 3월 27일 첫 송출을 시작하게 된다.

이후 재방송도 10여회 지속적으로 하기에 군산 짬뽕과 군산을 알리기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짬뽕 특화거리 입점자 지원을 위해 위생용품지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영업장 운영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제정을 추진 중이다.

익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중소 7억원 투입

익산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영여건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시설환경개선, 마케팅지원 등 지원 5개 사업에 7억2천만원 교부금을 실시한다.

이에 중소기업 환경개선, 석재 섬유 환경개선, 여성기업 마케팅지원, 석분폐기물 운반비지원 총 5개사업 분야 143개 사업자들에게 총 7억2천만원을 지난 20일 교부하여 사업의 신속 집행에 나섰다.

이번 사업들은 공장 조명교체 및 바닥공사 등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기숙사나 구내식당, 화장실 등 복지 편의시설에 투자하는 한편, 노후기계 교체, 마케팅 활동 등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사업비의 50~60%를 지원한다.

시는 사업들이 상반기에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기업들의 어려운 현장 상황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